

# 에·너·지·단·신

## 범양냉방공업(주) 포송공단 기공식 가져

###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 통한 품질 경쟁력 확보

범양냉방공업(주)는 지난달 12일 아산만 일대 포송공단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준공했다.

약 4만여평 규모의 대지에 들어서는 이번 범양냉방의 생산기지는 범양냉방뿐만 아니라 가야산업과 십자성공업(주) 등 계열회사와 관계회사가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범양냉방은 금번 포송공단의 준공으로 생산공정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해 재고의 최적화는 물론 물류비와 원부자재의 공동구매가 활발해져 원가 절감과 품질개선 등 가격경쟁력에 크게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범양냉방공업의 장영근 회장은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고 안정된 생산기반의 구축이 가능한 포송공단의 입주를 통해 핵심 협력업체들과 합동화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품질 경쟁력은 물론 시장경쟁력의 확보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양냉방의 새로운 생산기지 포송공단은 올 12월 9개 협력업체와 함께 입주해 일관생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매립지, 소각용어 사용하지 마세요"

### 환경부, 자원·안정·에너지사업소로 명칭 변경

소각이나 매립, 폐기물처리 등의 시설명칭이 바뀐다.

환경부는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공표했다

환경부는 현재 사용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명칭을 음식물자원화사업소로 변경했으며 생활쓰레기 매립시설은 환경안정화사업소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환경에너지사업소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자원사업소로 각각 명칭을 바꿔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러한 방침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들이 국민들에게 소각장이나 매립장 등의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시설 설치가 갈수록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시설들이 소각이나 매립 등 단순처리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첨단시설의 설치, 사용으로 쓰레기 무해화와 소각열 이용 등 환경친화적이면서 자원재활용시설로 활

용되고 있다"고 전하고 "일부시설은 축구장과 수영장,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을 갖춰 지역주민의 편의시설로 자리잡아 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명칭변경과 함께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설치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가스산업신문>

## 질소산화물 정책 파급효과 연구 착수

### 지문위원회 구성, 올해말 최종연구 발표

국내 질소산화물(NOx)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연구가 올해말까지 진행된다.

한국가스공사 가스경영연구소는 지난 21일 국내 질소산화물(NOx)정책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착수회의를 갖고 올해 말까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NOx 배출규제의 적정 수준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천연가스 산업 및 기업의 부분별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가스공사 김효선 선임연구원과 서울대 권오상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유승직 박사, 조경엽 박사, 산업연구원 임동순 박사로 구성

된 지문위원단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지문위원단은 정기적인 세미나와 자체 워크숍을 개최해 산학연 의견을 수렴, 최종연구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번 지문단 구성을 계기로 향후 대기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가스공사측의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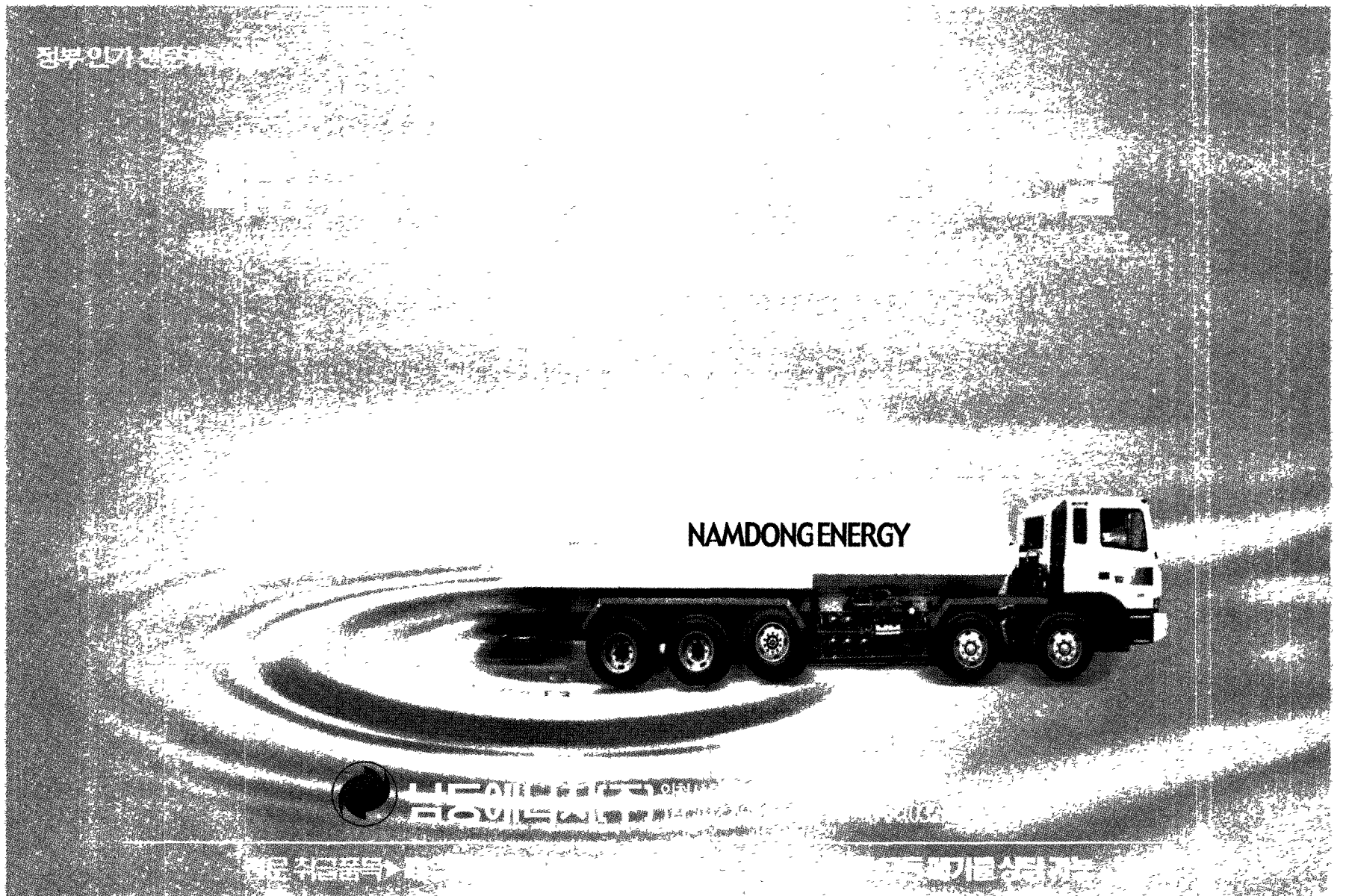
가스공사 김효선 연구원은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안)은 2005년 1월부터 기존의 농도규제를 총량규제로 전환하고 단수규제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이중 천연가스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질소산화물 저감 정책은 천연가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타연료에 비해 엄격히 적용, 타연료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가스산업신문>

## 국제유가 소폭 상승

### 미국 휘발유 재고, 3년만에 최저치 기록

2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8일 현지옌 거래된 서부텍사스중유(WTI)는 0.2달러 오른 배럴당 31.45달러를 기록했고 북해산 브렌트유도 29.90달러로 0.25달러 상승했다.



에너지통신

반면 시장상황이 하루 늦게 반영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0.28달러 내린 배럴당 27.51달러에 장을 마쳤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석유재고가 1억 9천120만배럴로 3년만에 최저수준에 이르렀다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발표로 휘발유가격이 오른데다, 내달 1일 노동절 휴일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루만에 gm를세를 뒀다"고 설명했다.

천연가스 냉방수요 전년 수준 불과

저온현상 및 강수일수 증가 원인

올해 냉방용 천연가스 판매실적은 저온현상 및 강수일수 증가 등으로 지난해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용 수요는 전년보다 9% 가량 증가해 목표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가스공사의 산업용 및 냉방용 천연가스 판매량 집계결과에 따르면 7월말현재 냉방용 판매량은 10만7,391톤으로 전년동기 9만8,716톤보다 8.8% 증가했다. 그러나 8월 강수일수 증가와 저온현상으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올해 냉방수요는 전년 총 수요 20만3,234톤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목표량은 23만톤이었다.

또 7월말현재 산업용 판매량은 200만1,140톤으로 전년동기 182만1,670톤보다 9.8%가 증가해 올해 목표량 346만톤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산업용 판매량은 3.1만3,539톤이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저온현상과 강수일수 증가로 인해 냉방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LPG소요량 전년과 비슷한 수준

부탄·프로판 2%대의 증감교차, 집단공급은 12% 증가

올 상반기 동안 소요된 국내 LPG량은 전년과 비슷한 296만7,000여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탄과 프로판가스가 2%대의 증감이 교차하면서 전체적으로 물량 변화를 상쇄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증감 현황을 보면 프로판의 경우 경기·대구·경북·대전·충남·제주지역만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감소한 반면, 부탄의 경우 서울·대구·충북 지역만이 감소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고른 증가폭을 보였다.

전년동기대비 2.2%가 감소하여 103

만9,000여톤을 기록한 프로판의 경우 용도별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집단공급 가스량은 오히려 12.1%가 증가한 9만2,900여톤을 기록했다.

일반 가정용의 경우 4.3%가 감소한 86만9,000여톤을 기록했으며, 산업용은 전년과 비슷한 6만4,000여톤으로 집계되었다.

또 정유사 및 수입사의 용도별 판매량을 보면 ▲충전소를 통한 판매량이 프로판은 134만8,000톤(0.9%증가), 부탄은 176만6,000톤(6.8%증가)으로 전체적으로 4.2%가 증가했으며, ▲산업용은 프로판이 9만5,000톤(18.1%감소), 부탄 2만6,000톤(43.5%감소), ▲도시가스용 프로판은 3만4,000톤(72.4%감소), ▲석화사는 프로판 2만7,000톤(20.6%감소), 부탄 11만3,000톤(13.7%감소), ▲공업원료의 경우 프로판은 23만3,000톤(7.5%감소), 부탄은 5만1,000톤(20.3%감소)으로 전체적으로 1.7%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LPG사용량의 정체 현상은 올해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으며 9월중 발족될 'LPG산업환경협회'를 통한 LPG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내년부터 본격화될 LPG차량용도로의 개조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수송용 부탄가스 사용량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서울시, 수송용 도시가스 공급비용 재조정

종전 요금체제로 환원

서울시가 최근 수송용 공급비용을 CNG충전소와 배관시설 공급비용으로 이원화한 이후 공급사와 수요처간의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종전 요금체제로 환원했다.

서울시는 올해 수송용 공급비용을 충전소 자체 공급비용으로 106.33원, 충전시설까지 계약요금(배관시설 공급비용) 19.01원으로 각각 산정하고 충전소 자체공급비용은 도시가스사에서 자율적으로 산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사들은 종전까지 최종소비자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던 배관시설 공급비용(19.01원)을 반영하는 등 요금인상요인이 유발됐으며, 공급사와 수요처간의 요금산정에 혼선이 빚어졌다.

또한 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의 정책과 어긋나는 등 운수업체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송용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체계를 종전과 동일한 형태로 재조정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또 CNG버스 보급확대와 수송용 요금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대기보전과가 주관해 올해 하반기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도시가스 관계자는 "수송용 공급비용에 대한 서울시의 재조정은 비록 도시가스사측에는 배관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정부의 환경정책과 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신문>

9월부터 복수표 주유소 비상표 제품 명시해야

석유유통질서 바로잡기 위해

9월 1일부터 간판 표시 상표외에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는 내·외부에 비상표 제품임을 명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주유소 비상표 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방법'을 두단계로 분류, 최근 관보에 공포하고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같은 조치는 복수표 주유소들이 상표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석유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1단계로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복수표 주유소들은 내달부터 비상표제품 판매시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내·외부표 시장소 및 이동판매차량에 '무상표제품 판매주유소' 또는 '무상표 제품'을 별도로 고정 표시해야 한다.

또 내년 6월 1일부터는 외부표시장소의 경우 글자를 보라색 바탕에 흰색으로 세로 40cm, 가로 30cm, 굵기 6c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산자부는 이를 따르지 않는 주유소업주에 대해서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거나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천500만원의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남,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본격 착수

6개 팀 구성, 바이오메스·지열·풍력 개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대체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한남은 지난 1일부터 사내 연구개발실을 중심으로 총6개의 대체에너지팀을 구성하고 연구개발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채택한 6개 과제는 지역난방사업과 가장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열을 비롯해 풍력, 태양열, 바이오메스, 마이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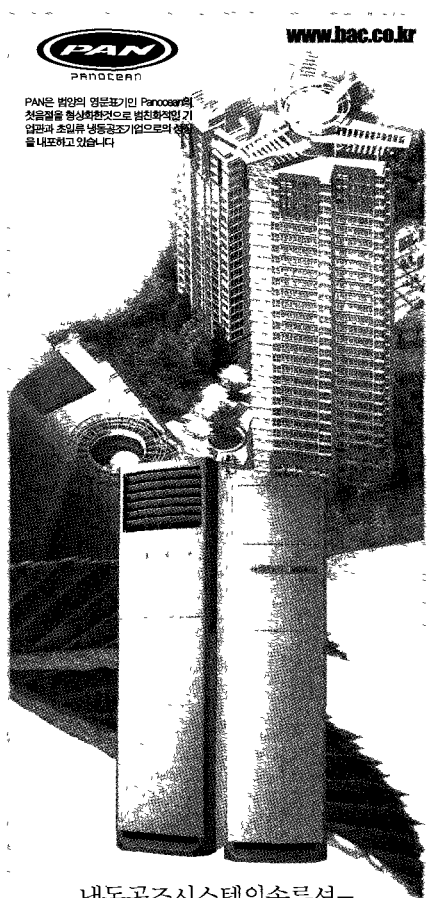
터빈 등이다. 이 가운데 지열과 바이오메스, 풍력 등 3개 분야는 올해 약 6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태양열과 태양광 발전시스템으로 순차적인 기술요구가 이뤄진다. 한남은 이러한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이 독자적인 사업아이템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기존 지역난방 공급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남 관계자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지역난방에 대체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가 국내 대체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6개 대체에너지팀은 국내외 대체에너지 기술동향과 협력체계 구축, 관련정책 연구, 기술개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한남은 지난 2001년부터 대체에너지 개발과 이용실태에 대한 국내외 현황조사와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지역난방 공급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한 6개 분야를 우선 연구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가스산업신문>



냉동공조시스템의 솔루션 - 판오션 에어컨 건물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냉동공조시스템의 솔루션 - 범양냉방공업주식회사 ▶ 고객센터 : (02)401-4321, (교)761-7631 ♣ 클로버서비스 : 080-022-8815-6